



PROFESSORS' COUNCIL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수회

교수회브리프

제17권 3호 2022학년



교수회 브리프 17권 3호 2022학년. 발행일 2022년 8월 31일
발행인-조항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엄희재·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행정관 532호 Tel. 031-4005-21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Contents

03 Welcome

권두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박영준 교수,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회 부회장 죽전지회장

04 Strategy Session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회-대학 간
경기 복지협의체 및 기타 소통사항 보고
이기광 교수,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회 총괄사무국장

05 Community News

2022년 1학기 교수회 활동
정년퇴임식, 통합운영위원회, 중간고사 간
식행사, 복지협의체 회의, 스승의 날 행사, 교
수-학생 사제 간 노래대회, 여교협-교수회 협
동 온라인 특강, 교직원 테니스 대회 협찬

09 Contribution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단국인
이애경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원예조경학부
천안캠퍼스 인권센터장

각자의 씨앗
정훈동 교수, 음악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정든 인생정원을 그리워하며
김선욱 교수, 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진정한 여행,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박삼철 교수, 교육대학원

39.5
황형태 교수,
사회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반도체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김민주교수,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연 교수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비대면 수업의 진실??
정치영 교수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회 부회장 천안지회장

21 신임 및 퇴임교원
상조활동
교수회 임원 및 운영위원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편집후기 및 기고방법 안내

권두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박영준 교수
법학대학 법학과
교수회 부회장 축전지회장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vid-19로 인하여 타의적으로 시작된 비접촉, 온라인 학교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이번 2학기부터는 전면적인 대면,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감염병의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더 이상의 온라인 수업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캠퍼스에서 자주 뵈지 못했던 여러 교수님들을 다시 자주 뵈 수 있다고 생각되니 기쁘고 설렘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대학본부의 연구업적개정과 관련하여 저희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대학본부에 전해 연구업적개정시 행여 교수님들의 권익이 불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교수회에게 연구업적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건설적 의견을 보내주신 양 캠퍼스의 교수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본부 측에도 교수회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경청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이번 연구업적 개정 과정을 통해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과의 개별적인 학문적 특성을 대학본부측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학본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우리 교수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1일 새로이 '교수회'로서 발족된 이래 어느덧 시간이 흘러 2년의 임기가 이번 학기로 만료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중에는 우리 교수회를 새롭게 맡아 한발짝 더 발전시킬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기 위하여 교수회 회장 및 감사의 선임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현 집행부는 공정하고 깔끔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새로운 집행부 선임을 위한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대면, 오프라인 수업, 그리고 새로운 교수회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등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학기입니다. 처음 대학에 교수자로 들어왔던 그때의 초심과 교수회가 새로 구성될 때의 마음가짐으로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2022년도 제2학기가 되도록 조한승 회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우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및 기타 소통사항 보고



이기광 교수
경원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교수회와 대학본부 간 정기적 소통채널인 교수회-대학 간 제3차 복지협의체가 2022년 5월 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학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 교무처장 등 본부 측 대표와 교수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지난 3월 31일 2022학년도 1학기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연구과제 책임자의 국내외 출장시 교통수단의 현실화를 위해 교내연구비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올해 8월 19일부터 해외출장시 계약직이 아닌 교직원들은 연구과제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의 경우 항공운임 2등석(Business Class) 이하의 좌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시 KTX 특실 이용에 대한 국내여비규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쉽지만, 전향적인 입장에서 교수님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유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해소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해를 모아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교원인사 연구업적 요건 기준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교수회에서는 학과단위의 의견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교수님들과 공유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피해 및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교수회는 자체 TF팀을 가동하여 타대학의 규정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대학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교수회 입장을 정리하여 운영위원 교수님들의 온라인 검토를 받아 연구업적 기준 사항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안을 작성하여 본부 관련 부처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의 여러 보직자들께서 관심을 표명하셔서 직접 설명 드리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본부에서도 교수회의 건의를 고려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이 지난 8월 23일 배포된 교원연수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학문분야별 연구여건과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에 이번 개정안이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을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TF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본부도 교수회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관련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소통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원연수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학술지 가중치 적용기준 변경 및 등재지 가중치 폐지*
- 자연계열 연구업적 요건 중 SCI급 요구점수 상향*
- 산학협력실적 인정기준 변경
- CS분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00점 인정

그밖에도 교수회는 지난해 대학평가에 사용되었던 연구실적 데이터에 일부 불확실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본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대학본부도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외부기관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개인의 교육·연구가 곧 우리대학의 역량이며 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대학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회, 대학본부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2024.03.01. 이후 적용되며 기타 사항들은 2023.03.01.부터 적용됨

2022년 1학기 교수회 활동



2월 2021학년 2학기 정년퇴임식

정년퇴임식을 맞아 교수회에서 꽃다발과 상품권을 증정했습니다. 조한승 회장 등 교수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퇴임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3월 2022학년 1학기 보직자 명패 및 화환 전달

교수회에서는 생애 첫 보직(교무위원급) 및 부총장에 보임되신 교수님께 전체 교수님들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패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병구 교수
천안캠퍼스입학부처장



김오영 교수
산학부총장



이종수 교수
석주선박물관 관장



윤상오 교수
다산링크스쿨 학장

2022학년 1학기 통합운영위원회

2022년 3월 31일 죽전캠퍼스 범정관 314호 화상회의실과 천안캠퍼스 인문과학관 208호 대회의실에서 제1차 통합운영위원회 의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2021학년도 회계 감사보고 및 2021년 2학기 활동내용 보고, 2024학년도 학사구조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교수회 예산 및 활동 계획이 있었고, 기타 건의사항을 나눴습니다.



사진 : (왼쪽부터) (왼쪽부터) 박영준 죽전지회장, 박재춘 위원, 임은주 죽전사무국장, 박명선 여교협회장,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사무국장, 강동승 감사, 이수진 위원, 전종우 위원



사진 : (왼쪽부터) 김현범 위원, 경지수 위원, 김정윤 감사, 정치영 천안지회장, 류병재 위원, 박성만 천안사무국장, 조상우 위원

4월 202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간식행사 (죽전, 천안)



사진 : 천안캠퍼스 행사당일

교수회에서는 중간고사 일정에 맞춰 4월 18일과 19일 양일 동안 죽전 캠퍼스 해당관 앞과 천안 캠퍼스 율곡도서관 광장 앞에서 간식 배포 행사를 했습니다. 양 캠퍼스에서 콜라와 햄버거로 구성된 간식 300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사진 : 죽전캠퍼스 행사당일

5월 2022학년 1학기 복지협의체 회의

5월 2일에는 복지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연구과제 책임자의 출장, 여비 규정 현실화를 위한 연구비 규정개선 건의와 학문 분야별 연구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교원인사 업적기준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 '2022학년도 1학기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및 기타 소통사항 보고' 참조.



사진 : (왼쪽부터) 이기광 총괄사무국장, 박영준 죽전지회장, 정치영 천안지회장, 조한승 회장, 장세원 교학부총장, 유정석 기획실장, 강정원 교무처장, 허승욱 천안교무처장

스승의날 행사

교수회는 5월 10일 스승의날 선물로 회원님들 앞으로 우산 세트를 배포하였습니다. 또 5월11일에는 학생대표들(이름)과 총장님을 뵈고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 (왼쪽부터) 최수현 죽전부총학회장, 조한승 교수회 회장, 김수복 총장, 양도균 죽전총학생회장, 마스크트 단웅이



스물다섯-마흔하나, 사제동행 노래자랑



5월 19일에는 천안캠퍼스에서 교수-학생 사제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수회는 상품 협찬으로 갤럭시 탭 두 대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갤럭시 탭은 2등의 영예를 안은 '단뎃드림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진 : 사제동행 노래자랑 참가자들과 박승환 천안부총장, 허승욱, 천안교무처장, 김기홍 천안학생처장, 조한승 교수회 회장

6월 여교협-교수회 협동 온라인 특강

6월13일에는 여교협과 교수회가 협동으로 주관하는 Zoom 활용 온라인 강의 '단 교수의 감상에 투자를 더하다' 개최했습니다. 경수아트센터 관장 박정수 강사의 강의로 미술시장과 NFT, 미술작품 감상과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 Zoom 활용 온라인 강의

단 교수의 감상에 투자를 더하다.

주최 단국대학교 교수회, 단국대학교 여교협
주최 단국대학교 교수회, 단국대학교 여교협
주최 단국대학교 교수회, 단국대학교 여교협

강사 박정수 경수아트센터 관장

주제 1. 미술시장의 현황과 전망
 2. 미술작품의 감상과 투자
 3. NFT와 미술시장
 4. 미술작품 감상과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5. 참가자 온라인 질문응답

2022.06.13(월) 4시~5시
 교수님들의 질문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 단국대학교 교수회 011-400-1000/1001

202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간식행사 (죽전, 천안)

6월 14일, 6월 15일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행사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간식행사와 같은 규모로 이뤄졌고, 역시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준비한 간식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과 교수회의 의견을 모은 간식행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조한승 회장, 임은주 죽전사무국장, 김민희 교수, 이수진 교수, 이기광 총괄사무국장, 강동준 감사, 박영준 죽전지회장



사진: (왼쪽부터) 조한승 회장, 경지수 교수, 박성만 천안사무국장, 경치영 천안지회장, 김경윤 감사

Community News

2022학년 1학기 보직자 명패 및 화환 전달

교수회에서는 생애 첫 보직(교무위원급)을 맡으신 교수님께 전체 교수님들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패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 위부터) 박영 문과대학 학장 / 박재춘 산학협력단 단장 / 허재영 교육대학원 원장
김종수 치과대학 학장 / 서상국 외국어대학 학장
한관영 공과대학 학장 / 강현 보건복지대학원장 / 송일한 의학대학 학장

교직원 테니스 대회 협찬



교수회에서는 춘계 교직원 테니스회를 협찬했습니다. 이번 행사 후원 기관인 '임영웅 팬카페 히어로온'은 '임영웅 정규 1집 앨범'을 협찬했고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전용균 교수님의 소개로 교수회에 기증되었습니다. 후원 물품은 2학기에 있을 행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품을 후원해 주신 기관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전용균 교수님 감사를 표합니다.



2022학년 2학기 행사 계획

- 9월 통합운영위원회
- 10월 교수회-대학 복지협의체
신임교원 환영 आय회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
여교협 주최 행사
- 11월 차기 교수회장/감사 후보 등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단국인



이애경 교수
성명공학대학 환경원에조경학부
천안캠퍼스 인권센터장

인권, 나와는 상관없는 일?

미투, 젠더, 팬데믹 인권... 급변하는 시대만큼이나 새로운 인권 문제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또 다른 권리와 충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학 내에서도 관련 문제들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학 내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인권센터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간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직제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대학 내 다양한 인권사건의 예방과 침해 사건에 대한 회복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두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문관계와 업무관계가 융합된 곳으로 다른 조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학은 사제관계가 있는 학문공동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공에 따른 폐쇄성과 대체 불가능성, 협소한 학문공동체에서의 소문과 낙인의 위험, 고립되기 쉬운 환경, 또한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로, 학위, 성적 결정권이 있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둘째, 대학에는 복잡한 관계와 다양한 지위가 상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중첩적, 다층적인 지위와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학업 및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자 강사이자 연구원일 수 있고 조교일 수 있지만 근로자는 아닌, 대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지위와 상황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학문 관계 내에서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학내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문제 제기과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인권센터에 공정한 합리적인 사건 해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그리고 대학 공동체에 적합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대학 내 인권침해 접수 사안은 법률적 접근이나 인권적 접근이나의 양자택일의 논리보다는 본교의 규정을 토대로 인권센터의 활동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인권 사건으로 고충이 있는 경우 인권센터 방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따뜻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학 내 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는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상담, 조사, 심의, 조치, 관리까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접수된 사항은 모두 사건으로 접수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회복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그림1).

상담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및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고 인권침해사건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심리적 지원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접수

상담실시

피해자 사건 해결 방식 결정

개인적 해결

피해자지원
상담

상담종결

조사·심의

신고접수

중재
(합의 및 조정)

사건종결

후속조치 (중재
서약 이행관리)

각자의 씨앗



정훈동 교수
음악·예술대학 디자인학부

"2023 그라피스애뉴얼
포스터부문 플래티넘상
수상"

6월경 교수회 회장님이 기고를 제안하셨습니다. 브리프 지면에 있는 교수님들의 필력에 고민이 깊어졌지만, 마음 편히 쓰자! 다짐하고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적지 않은 제 수상 비결을 궁금해 하십니다. 이 기회에 그 비결(?)을 조심스레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사를 밟으며 출강도 하던 시기에 제 경력을 자평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함' 그 자체였지요. 저는 학생들에게 누군가를 한두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브랜드'를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제 자신을 그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국내 공모전에서 큰상을 탔던 학창 시절을 반추하다가 국제 공모전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거늘 국제 무대의 경향도 저의 강점도 모른 채 흔하들 표현하는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덤볐습니다. 혹독한 댓가(?)를 치루며 그 무대에서 통하는 저만의 강점을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도전하다보니 수상도 하고 인정도 받아 마흔 즈음에는 나름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교수'가 되었으니 국제 공모전 같은 험난한 도전에서 좀 물러나도 되지 않을까? 그러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 작품은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행히도 치열한 경쟁과 도전이 제 인생의 '목적'만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작품들중 빛이 나아 생존하는 적박함에서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제 성장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모교를 세계에 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매진하게 되고, 강산도 변해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외 무대에서 경쟁을 통한 실증적 경험이 저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용'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지요. 그 결과, 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국제 공모전에서만도 80여회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성장에 자양분이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서로 성향을 존중하며 역량껏 매진하면 결국에는 '대체 불가'의 브랜드도 득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우리에게는 만개를 위한 각자의 씨앗이 있으니까요.



Unity is Flexible | Trojan Horse | Moebius T | 3D Type Exhibition

정든 인생정원을 그리워하며



김선욱 교수
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우선 지면을 사용하여 퇴임의 소회를 기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경과 행복, 예일대의 죽음 수업이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주제들이 인생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전자는 인생의 회로 애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정, 정원, 그리움 등인 걸 보면 희락(喜樂)이 애로(哀愁)보다 월등하게 많은 생활로 30여년을 단군 품안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이별의 아픔과 허전함은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 회자정리란 말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산업공학사로 출발하여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평생 산업공학 분야에서 종사함으로써 저도 모르게 시스템 최적화를 하려는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 왔습니다. 이익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라는 내용을 교육하면서 말입니다. 30주년 산업공학과 졸업생 모임에서 전공에서 배운 물리적 최적화를 이젠 넘어 정신적 최적화를 경하도록 하여 행복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최적화 정신이라고 축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믹스, 업무믹스 등 믹스라는 삶에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저는 운 좋게도 교육, 연구, 행정, 봉사, 친구 등 업무나 활동 등의 기회가 넘치도록 주어진 것 같아 믹스의 폭이 한층 넓게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들로부터 유래하는 희락과 애로를 최적화하면서 행복한 삶을 가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희락은 제자들의 성공과 친교활동이 주요 원천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학업이 무척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연계해 주었을 뿐인데 대변신하여 대기업으로 취업한일, 의기소침하여 상당 온 편입생들에게 재학생보다 더 나은 선택과 도전의 추가 재능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격려해 줄 때 대변신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교수의 보람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재직하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은 동료교수들과의 애정 어린 소통으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한 교수의 말씀이 지금도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네요. 최근 많은 교수들이 정년퇴임으로 안 보이셔서 캠퍼스가 너무 쓸쓸하다며 말씀하시는 얼굴표정에 쓸쓸함이 너무나 역력하였습니다. 정말로 정감 넘치는 교정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로는 인간관계의 불협화음과 학생, 교직원에게 닥친 불행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교직원간의 약간의 갈등, 갑작스럽게 닥친 학생의 불행과 동료교수의 암, 자살, 조기 퇴직과 같은 내용은 너무나 맘이 아픈 일로 회상됩니다.

혹자는 행복한 삶의 요인으로 심리적 웰빙, 신체적 웰빙, 사회적 웰빙을 이야기하나 최근에 한 작가가 주장한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6대 자본이란 글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 작가가 제시한 6대 자본은 신체적 자본, 경제적 자본, 인지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정체성 자본입니다. 건전한 신체와 적절한 노후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나머지 요소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인지적 자본은 머리와 손 등을 꾸준히 연마하여 폭넓은 분야에 문제 해결능력을, 사회적 자본은 주변 분들과 양호한 관계망 형성을, 심리적 자본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확립을, 정체성자본은 본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본들 중 정체성자본이 컨트롤 타워 성격을 가짐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 6대 자본을 조화롭게 최적화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각 요소들을 부분 최적화하기도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번 크게 아픈 적이 있어 요산 질병장수야 외치면서 항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단히 경제적인 운동인 테니스를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지나치게 즐기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오는 불상사를 겪어 확고한 신체적 자본을 축적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요즘은 욕심을 절반으로 하향하여 승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신체적 자본은 좀 손상된 채로 유지 중이지만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자본은 급진강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대작가인 톨스토이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성품이 좋은 미인이고, 아이들은 착하고 재산도 충분하다. 내 재산은 뛰어난 재주와 강한체력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고 유명하기까지 하다. 그러나”에서 암시하듯이 그는 허무감, 자살충동과 싸우며 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신체적 자본, 경제적 자본, 인지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 모두 충분했지만 심리적 자본과 정체성 자본이 결핍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현재 나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여 눈길을 끈 책, 한 정신분석학자가 집필한 ‘30년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의 주요 내용은 외부적으로 성공했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례를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부분인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톨스토이가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자본들을 축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삶의 비결은 없지만 모든 분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는 6대 자본의 최적화 노력을 통해서 애로를 최소화하고 희락을 최대화하는 행복한 삶에 근접하시길 기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회고해 보면 저도 이 6대 자본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회장 시절 정년퇴임 식장에서 하루를 2~3배로 열심히 살면 아직도 60년 남았다고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기간 동안 6대 자본을 조화롭게 만들어 간다면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들은 동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후배 교수님들께서도 현 시점부터 각자에게 맞는 6대 자본을 최적화하고, 지속적 튜닝을 하면서 균형감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30여년의 기나긴 여정 동안 행복한 인생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교수, 직원, 학생 모두와 학교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여행,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박삼철 교수
교육대학원

진목공(秦穆公)

백리해

진목공

백리해

금년 연세가 몇이오?

겨우 칠십(七十)입니다.

(탄식하며 말한다) 아깝구나! 너무 늦었도다.

이 백리해에게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우려면 신은 이미 늙어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에게 앉아서 나라 일을 하라 하시면 신은 아직 젊습니다. 옛날 강태공은 나이 팔십(八十)에 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의 강태공과 비교하면 아직도 신은 열 살이나 젊습니다.

어린 학창시절에 만난 백리해(白里溪)란 인물이 있다. 나이 칠십이 될 때까지 포로와 종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백리해! 칠십의 나이인데도 아직 열 살이나 젊다니! 왜 어린 시절에 백리해란 인물이 가슴에 새겨졌을까? 인생을 정리해야 할 고희(古稀)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강렬함이 무척 신기했었기 때문이라.

나에게도 그 나이가 올까? 천년(千年)도 수유(須臾)라 했던 정비석님의 한탄처럼 어느 순간에 나도 인생 2막을 정리해야 할 순간에 서게 되었다.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로 바쁘게 살아온 30여 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편안한 직장을 그만두고 삼십(三十)이 훌쩍 넘은 나이에 유학을 간다고...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고생시키며 보냈던 유학시절과 주님을 영접한 축복... 전임교수 발령장을 받던 날 저녁, 감사함에 눈물 흘리던 아내의 따뜻한 감사 기도! 연구와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리시던 선친의 가르침! 신입교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어느 교수님-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시의 연구처장이나 교무처장이셨을 것 같다-께서 해 주셨던, "이제 대학교수가 되었으니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시라"던 권면의 말씀 등등 가슴 벅찬 순간이 떠오른다.

내게 단국대학교 교수로서 살아온 시간들은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비록 미흡한 점, 후회스러운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들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어둠의 벽면을 뚫고 한 발을 내딛기 위해 고뇌한' 어느 철학자의 학자적 삶을 달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었다. 비록 개인적 불민함으로 어둠의 벽을 뚫고 나오지는 못했으나 벽에 부딪히며 한 발을 내딛으려 한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는 교직원과 학생들과 함께 한 수업 시간은 우리 대학 교수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임용고사반 학생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하며 12월 눈 쌓인 교정을 거닐었던 추억들, 임용고사에 합격했다는 감사의 메일을 받는 순간들은 우리 대학에서 맞은 가장 잊지 못할 행복한 순간들이다. 그동안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니, 진정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중략)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트

이제 세월의 풍파에 새겨진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뒤로한 채
진정한 여행을 떠나려 한다. 내 주변을 감쌌던 조직의 역할 기대
와 규범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나에게 기다리는
최고의 날들은 어떤 날들일까?

아름다운 삶과 청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어 볼까? 아니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 소설쟁이는 어떨까? 히크메트의
노래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리라! 나에게도 백리해(百里奚)처럼
새로운 여행에 대한 상큼한 충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동친다.

최고의 여행은 아직 떠나지 않은 여행이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아직 살지 않은 최고의 날들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노래
를 부르며 진정한 여행을 떠나보자!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황형태 교수
사회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1985년 3월 단국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37.5년을 근무한 끝에 정년을 맞게 되었다. 그보다 2년 앞서 1983년 3월부터 2년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를 했었으니까, 단국대학교라는 한 직장에서 만 39.5년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셈이다. 한 직장에서 39.5년 근무라니 요즘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전임강사로 임용된 그 해 여름에 아내를 만나 늦은 가을에 결혼했으니, 임용 시에는 총각이었다가 퇴임하는 지금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에 외손주, 친손주까지 둔 명실상부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39.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개인적으로는 어떤 큰 부침도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왔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거듭 맞이하면서 때론 좌절하고 때론 갈등하면서도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도 했던 시기였다. 개인의 생활패턴의 대변화는 물론이고, 크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일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국제적 위상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 아마도 지난 40년 우리 사회가 겪어온 변화의 폭이 그 이전 단군 이래 5,000년간의 변화의 폭에 비해서도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셈이다.

그 동안 우리 대학도 국제금융위기의 IMF사태 속에서 대학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고, 기존의 한남캠퍼스에서 현재의 죽전캠퍼스로의 캠퍼스 이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르는 대학재정의 악화,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학운영의 커다란 변화 등이 있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의 남다른 노력으로 여러 어려움을 무난히 헤쳐 나왔다고 생각한다.

교수, 학생, 직원은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들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39.5년이라는 단국대학 교수로서의 세월을 한마디로 굳이 표현하자면 ‘인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세월’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경향이 있어서 학과 내 교수들 관계조차도 그리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우리 학과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 교수들 간에 화목해서, 별일이 없으면 점심식사와 교내 식당에서 학과교수 전원이 함께 하고, 식사 후에는 티타임을 통해서 학과교수 간 소통이 일상화될 정도였다. 농담 삼아 우리 학과만큼 교수들 사이가 좋은 학과가 전국적으로도 드물 것이라는 얘기들을 가끔 했지만 농담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듯 학과교수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고 갈등구조가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으로서의 학교생활에 더없이 편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모두가 하나같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학과교수님을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경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교수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니 학생들 역시 학과 교수님들을 잘 따르고 학과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학생지도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가 많았던 탓인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2건의 주례를 시작으로 졸업아 60-70명의 제자들 결혼에 주례를 서왔던 경험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에 정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학과에서 퇴임행사에 대해 언급하기에 그런 건 이제 시대에도 맞지 않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난다는 평소 소신이 있어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태의 퇴임행사도 절대 사양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과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강의실에 40-50명의 졸업생들과 학과교수 전원이 참석하여 나 몰래 비밀리에 준비한 퇴임행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크게 당황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홀지에 치르게 된 행사이기에 적잖이 당황하기는 했지만 한창 바쁜 졸업생들이 모교은사의 정년행사라고 이렇게 많은 준비도 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을 터, 새삼 우리 제자들에 대한 사제의 정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평교수로 지낼 때는 직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 대학에서 직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지만, 입학관리처장이라는 본부보직을 맡아 여러 직원들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부보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대학 대부분의 직원들은 책임감과 자기분야에서의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곤 했었다. 우리 대학의 직원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자기업무에 임하여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대학에서 잘 조성해 준다면, 직원들 역시 우리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교수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수들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인간은 자유로울 때 가장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사색에 잠겨 있다가 우연히 다 익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원리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 당시 뉴턴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과나무 아래서 사색에 잠겨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단국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도 더 많은 자유로움 속에 더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본인 역시 교수로서의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면서 이제부터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홀가분함을 느끼며 떠난다. 부디 우리 단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반도체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김민주 교수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안녕하세요. 2022년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에 신입교원으로 부임한 김민주라고 합니다. 2021년 학위를 마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VNAND Flash Device의 10세대 아키텍처를 연구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가지 일들이 정신없이 터져 나오면서, 강의 준비하고 학생 지도하면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개발 및 메모리 소자 개발입니다.

근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반도체로 구성된 칩이 탑재되지 않은 제품이 없을 정도로 반도체는 우리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두뇌를 담당하는 이런 반도체를 놓고 전세계적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연산능력이 극대화된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가열한 경쟁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 능력을 가진 국가가 곧 국제적인 중추로 거듭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서 DRAM과 NAND flash의 점유율이 전세계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고자 관련 지식과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메모리 분야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기억과 용량을 담당하는 중추로서 앞으로도 고성능 고집적도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 반도체도 탄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는 수학, 물리, 화학, 기계, 소재, 전자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기 위해서 오래로부터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고, 고성능의 장비를 활용하여 머리카락 보다도 수만배 얇은 미세한 패턴을 그리고 반복해서 쌓게 됩니다. 미세한 패턴을 그리기 전에 설계 및 공정/소자 엔지니어가 협업하여 물리적인 형상을 논의하고 검토하여 최종적인 도면을 완성합니다. 최종적으로 패키지가 완료되면 제품으로서 완성되어,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 값싼 칩을 제작했다는 홍보와 동시에 시장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산업 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지식 그리고 각 전문 분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인재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넓게 생각하면서 디테일은 놓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의 소통이 원활한 사람”

단국대학교가 위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전기학과를 넘어서 다른 공과 및 이과 대학과의 협업도 마다하지 않고, 단국대학교가 우수한 반도체 인재 배출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연 교수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신입교수로 부임하게 된 박수연입니다. 명문 사학인 단국대에 와서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기업의 언어라 일컬어지는 회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내부 및 외부 정보이용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역할을 합니다. 저는 다양한 회계 분야 중에서도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내부 회계 정보 제공과 관련된 관리회계를 세부 전공하였습니다.

강의를 함에 있어서, 저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나 예시를 미리 생각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 자칫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의 강의로 이어질 수 있는 회계학의 수업을 좀 더 활기차고 유연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감사인으로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감사하고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제 실무경험을 수업 시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회계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에도 수시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지식 및 질문, 그리고 진로 고민 등과 같은 상담에 최선을 다해 응하여 학생들의 멘토(mentor)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이끌어 내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느냐와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단국대학교에서 충분히 발휘하여, 후진 양성에 보탬이 되고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학문적인 연구에도 힘을 쏟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수이기 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배움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인정받는 회계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수업의 진실 ??



경치영 교수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회 부회장 천안지회장



신임 및 퇴임교원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원에게는 축전과 선물, 퇴임교원에게는 꽃다발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퇴직자

김영제 (문과대학 사학과)
박경식 (문과대학 사학과)
김연중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하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구용서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황형태 (SW융합대학 정보통계학과)
김재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백영은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박삼철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이민영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김선옥 (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김남훈 (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김용빈 (공공·보건과학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곽상준 (의과대학 의예과)
박우성 (의과대학 의학과)
이종경 (간호대학 간호학과)

2022년 2학기 신임교원

심경보 교수(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김병수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최준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남재현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송현민 (SW융합대학 산업보안학과)
강필성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건용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김지영 (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김동재 (대학원 인공지능융합학과)
정유한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김상결 (자유교양대학)
정광훈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유영상 (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최용석 (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황두형 (생명공학대학 제약공학과)
이용원 (의과대학 의예과)
서유미 (의과대학 의예과)
권혁찬 (의과대학 의예과)
정효경 (공공·보건과학대학 공공정책학과)
조영은 (치과대학 치의학과)
오규영 (치과대학 치의예과)
김승연 (약학대학 약학과)
기혜성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상조활동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화환, 축의금,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선엽 교수(공과대학) 결혼

부고

오민석 교수(문과대학) 모친상
이미선 교수(음악, 예술대학) 부친상
안도현 교수(예술대학) 빙모상
김은경 교수(특수교육대학원) 부친상
황종원 교수(문과대학) 부친상
박희곤 교수(의과대학) 부친상
김현주 교수(외국어대학) 부친상
김재일 교수(사회과학대학) 모친상
서문석 교수(경영경제대학) 부친상

한길준 교수(사범대학) 모친상
이건식 교수(문과대학) 빙모상
박덕규 교수(예술대학) 빙모상
박승훈 교수(사회과학대학) 부친상
윤석현 교수(공과대학) 부친상
박종미 교수(예술대학) 빙부상
장철준 교수(법과대학) 모친상
이석준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모친상
장태수 교수(공공, 보건과학대학) 모친상

이수정 교수(간호대학) 부친상
유정석 교수(사회과학대학) 모친상
박규식 교수(SW융합대학) 부친상
한경근 교수(사범대학) 부친상
김주섭 교수(자유교양대학) 빙모상
윤명철 교수(공과대학) 빙부상
임수경 교수(자유교양대학) 부친상
신윤아 교수(스포츠과학대학) 모친상

교수회 임원 및 운영 위원

교수회 임원

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 죽전 3318	✉ hanscho@dankook.ac.kr	사회과학관 408
부회장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 죽전 3279	✉ yjpark@dankook.ac.kr	법학관 538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 천안 3721	✉ chired@dankook.ac.kr	예술관 112
사무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이기광	☎ 죽전 3421	✉ kiklee@dankook.ac.kr	상경관 520
지회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 죽전 3217	✉ elim@dankook.ac.kr	ICT관 124
사무국장	자유교양대학 박성만	☎ 천안 1398	✉ seongmanpark@dankook.ac.kr	사회과학관 141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강동승	☎ 죽전 3830	✉ dskang@dankook.ac.kr	사범관 607
감사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김정윤	☎ 천안 3423	✉ jeongyunkim@dankook.ac.kr	자연과학2관 809
	여교협회장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명선	☎ 죽전 3108	✉ mmspark@dankook.ac.kr	법학관 513

교수회 운영위원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문과대학	영미인문학과 위혜경 국어국문학과 권진욱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김병율
	음악학부 김난희 음악학부 이수진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상범 컴퓨터공학과 박경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남재걸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법과대학	법학과 정해상 법학과 박영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이기광
	경영학부 전정호
	경영학부 문보영
	무역학과 이지수
공과대학	건축학부 홍경구
	건축학부 이경구
	전자전기공학부 장우영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교육학과 이영희 (1학기)
	특수교육대학원 정연수 (2학기)
	교육학과 박명선
	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자유교양대학	유혜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최형준
	과학교육과 임은주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외국어대학	몽골학과 류병재 아시아중학부 송상현
보건복지대학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공공정책학과 임동완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심상길
	물리학과 경지수 식품공학과 이형재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미술학부 조희경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이병관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미옥
약학대학	약학과 강명주
자유교양대학	조상우 박성만
의과대학	의학과 조경진
	의학과 강윤단
	의학과 민준원
치과대학	치위학과 조자원
	치위학과 신수연
	치위학과 김종빈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이은정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형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죽전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 031-8005-2894 엄희재 조교
 천안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인문과학관 244호 ☎ 041-550-1553 김현지 조교
 이메일 : prof@dankook.ac.kr 웹사이트: <https://cms.dankook.ac.kr/web/professor>

편집집중기 및 기고 방법 안내



이지수 교수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교수회 브리프> 제17권 3호는 기나긴 비대면 수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캠퍼스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학생들로 붐비는 캠퍼스를 보자니 반갑고 설렙니다. 이번 호를 빛내주신 만평과 미술작품, 교수님들의 동아리 행사와 학생 행사 소식과 교수님들의 글들로 <교수회 브리프>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참여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수회 브리프> 는 교수님들의 참여로 더욱 신선하고 풍부해집니다. 교수님들의 글과 사연, 사진, 맛집소개와 소소한 일상,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교수회 사무국 이메일(prof@dankook.ac.kr)로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수회브리프 17권 3호 발행일 2022년 8월 31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엄희재·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